

신작은 기본, 오케스트라에 인디게임까지 ‘볼거리 풍성’

부산 벅스코서 오늘 개막식

‘지스타 2024’ 올해 20주년
참여부스 3359개 ‘역대최대’

총 3개 트랙 ‘G-CON’ 공개
올해 관람객 약 20만명 예상
입장객 시간 구분, 밀집도 완화



지난해 열린 지스타2023 현장.

/최빛나 기자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올해 참여 부스는 3359개로 BTC관은 2435부스 BTB관은 924부스, 44개국 1375개 부스로 마련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3250개)부스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는 다채롭다

13일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지스타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지스타 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PC·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도 선보인다. 또한 오케스트라, 시연, 인디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보다 관람객들의 볼거리, 체험거리가 더욱 풍성해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스타2024의 메인스폰서인 넥슨을 필두로 넷마블, 크래프톤, 펠어비

스, 웹젠, 하이브IM 등이 참여한다.

실제 BTC(기업-소비자 거래) 전시장의 경우 조기 신청 오픈 불과 20분 만에 대형 부스 전 구역이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지스타 조직위에 따르면 지스타 대표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G-CON(지스타 콘퍼런스)’는 14~15일 부산 벅스코 컨벤션홀에서 공개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 2024의 키노트 연설자로는 게임 산업 레전드 코에이 테크모 총괄 PD 시부사와 코우,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 프로젝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키타세 요시노리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지스타컵2024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지스타 2024에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이 국내 전시 행사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도 높다.

‘인디 쇼케이스 2.0 : 갤러시’ 역시 올해 지스타에서 대폭 확대됐다. 스팀과 함께 다양한 인디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씨클프롬닷과 마일스톤 게임즈, 섀넌게임즈 등 부산 게임기업 3곳도 참여해 시선을 모은다.

신작, 시연 중심으로 주를 이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크로스플랫폼 기반의 게임이 다양하게 출시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게임스킬, 도쿄 게임쇼 등에서 이목을 끌었던 펠어비스의 붉은 사막 등 신작 게임이 대거 출시되는 점도 기대감을 끌고 있다.

또 메인스폰서인 넥슨이 30주년을 맞

이해 기념존도 마련했다. 오는 16일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넥슨 대표 게임의 배경음악을 연주해 넥슨의 역사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스타 최초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스타 20주년, 메인스폰서인 넥슨 30주년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지난해 지스타보다 규모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신작 게임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태.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부산공동관도 더욱 풍성해진 것도 눈에 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스타 2024 기간 내내 50개 부스 규모의 부산공동관이 운영된다. 부산 우수 게임 기업 23곳이 부산공동관으로 참가해 29개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는 BTC 공동관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일반 관람객들도 부산 게임 기업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은 ‘당연’

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와 보안을 강화했다. 올해

지스타 관람객은 약 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람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입장으로 구분했다. 현장 예매 없이 100% 사전 온라인 예매 방식을 도입했다.

관람객이 벅스코 앞 6차선 도로를 건너서 전시장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센텀역 교차로에서 벅스코 정문 입구까지 6차선 도로를 양방향 통제한다.

도로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3개 노선(307번, 1006번, 2029번)과 시티투어(레드)노선이 벅스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우회 운행한다.

공식 앱 스마트티켓 현장 확인처도 오전(벅스코 야외주차장 부지)과 오후(벅스코 부대시설 부지)로 분리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구역별로 면적에 따른 수용 가능 인원 기준, 밀집 현상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경호, 운영, 안전요원 등을 비롯해 시, 주관사, 경찰, 소방 등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약 500명이 투입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지스타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철저한 준비 지원으로 참여 기업과 관람객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올해의 게임대상 영예

출시 하루만에 매출 140억 달성
140개국서 다운로드 1위 등 기록

렐루게임즈 ‘굿게임 상’ 등 수상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공로상’



방준혁 넷마블 의장(왼쪽 다섯번째)이 나혼자만 레벨업 개발 팀원들과 수상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최빛나 기자

‘2024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넷마블의 이번 수상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13일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부산 벅스코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24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게임사 중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영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관으로 시상한다.

올해 게임 후보작품에는 ▲‘그라나도 에스파다M’(한빛소프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 네오) ▲‘로드나인’(스마일게이트) ▲‘스텔라블레이드’(시프트업) ▲‘언커버 더 스모킹 건’(렐루게임즈) ▲‘창

세기전 모바일’(미어캣게임즈) ▲‘쿠키런: 모험의탑’(오븐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등 9개의 게임이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난 5월 인기 웹툰 IP 기반으로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하루만에 매출 140억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174개국 정식 출시 이후 글로벌

141개국 다운로드 1위, 글로벌 21개국 매출 1위 글로벌 105개국 톱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정식 출시 2주만에 다운로드 2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5000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넷마블의 올해 2분기 매출 7821억 원 중 20%를 차지하며 실적이 큰 기여를 했다. 향후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굿게임 상에는 렐루게임즈의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 차지했다. 렐루게임즈는 스타트업 기업상도 수상했다.

바른게임환경조성 기업상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차지했다. 기술창작상 기획 시나리오&사운드&그래픽&캐릭터에는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가 4개 모두 수상하며 업계 이목을 끌었다.

공로상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받았다. 우수 개발자상은 김형태 시프트업 개발자가 차지했다. 이스포츠 발전상은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수상작을 발표했다.

인디게임상에는 룽플레이스튜디오의 터미너스:좀비 생존자들이 차지했다. 인기게임상에는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가 수상했다. 플랫폼 구분 없이 3종의 게임이 수상되는 우수상에는 ‘로드나인’, ‘트릭컬 리바이브’, ‘퍼스트 디센던트’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가 수상했다. /최빛나 기자

인기협-엔씨소프트 게임 스타트업에 BTB관 전시 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엔씨소프트 후원으로 14일부터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부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기협은 지스타2024에 참가해 게임 기업들의 개발 게임과 콘텐츠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기협과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게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신청접수 및 내부심사를 통해 슈퍼조이·오지·올라프게임즈·36리터스 등 4개사를 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스타트업 위드 NC’ 공동관은 게임 및 콘텐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사의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미팅, 투자 제안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유럽우주국 수장, 트럼프 복귀에 “우주 개발 필요…美와 경쟁해야” /사진 뉴시스

▲ “너의 몸, 내 선택” “여자는 주방으로”…트럼프 당선후 ‘여혐’ 확산
▲ 메타, EU 규제에 폐북·인스타 ‘광고 제외 구둑료’ 인하



▲ “석유는 신의 선물”…COP29, 화석연료 퇴출 놓고 충돌
▲ 美 “북한군 대부분 러시아 쿠르스크 서 전투 참여” /사진 뉴시스